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162-169,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1.7.1.162.
JCCT 2021-2-22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국내 연구 분석: 1985-2020

Analysis of Domestic Studies i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1985-2020

서은주*, 차남현**

Seo Eun Ju*, Cha Nam Hyun**

요 약 본 연구는 성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선행연구 중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 및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을 주제어로 연구한 선행논문을 대상으로 발표 년도, 연구 유형, 특성,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측정변수 및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성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이성교제 및 성경험 등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성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를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 대학생,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performed to analyze the prior studies done in relation to performance to identify significant results with the concept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analyzed on a prior paper that studied gender and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as the main topics. Year of presentation, type of research, characteristic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 behavior measurement variables and effects were analyz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26.0 statistical program. Result of this study, variables with significant relationships related to the sex of university students wer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date, and sexual experienc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ing education and program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Students, Sex, Knowledge, Attitude, Behavior

*정회원,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제1저자)
**정회원, 안동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0년 12월 18일, 수정완료일: 2021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월 22일

Received: December 18, 2020 / Revised: January 15, 2021
Accepted: January 22, 2021
*Corresponding Author: yeoreo@daum.net
Dept. of Nursing , Andong National Univ, Korea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이 되면서 사회는 대학생을 성인으로 대하게 된다. 즉, 청소년 때와 달리,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자유 및 재량의 범위가 커지는 만큼, 자유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지게 된다[1]. 또한, 이 시기는 대학생 주변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자유와 책임의 발달과업을 이루려 노력하는 한편,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며 이성교제의 기회도 증가하게 된다[2]. 실제로, 한국 대학생의 이성교제 경험은 75.9%이고[4], 성경험은 27.8%[4]~54.7%[5], 56.5%[6]로 보고되고 있어 이성과의 빈번한 접촉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생식건강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3]. 또한, 대학생의 성행위는 충동적이며 무계획적인 경향이 강하므로[7] 대학생의 성 충동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즉, 대학생 시기의 성 충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건전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성 가치가 올바로 확립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임신, 임신중절, 성병, 인터넷 음란물 등으로 생식건강은 물론,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의 생식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성 지식의 발달은 안전한 성행위에 중요하므로[8-10] 대학생의 생식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생식기와 성 건강에 대한 지식은 물론 성 행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성지식을 대부분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 신뢰롭지 못한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11] 음란물 접촉실태 또한, 87.3%로 높고[12], 점차적으로 개방적인 성행동과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음란물에의 노출과 성행동에의 허용성 증가는 대학생의 성적 충동을 강하게 자극하여[14] 성적 질병에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부실한 성지식은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와 관련된 성적 피해를 유발하므로[15]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하고 성적 조절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은 초, 중,고등학교 때 성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었으나, 대학교 때 성교육 경험은 20.3%로 저조한 편이라[16] 이들을 위한 생식건강증진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지식만으로 올바른 성행위를 하게 하는데는 부족하므로 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성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성태도 또한, 중요하다.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는 상관성이 있고[5]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며[17]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18] 성과 관련된 잘못된 가치는 생식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올바른 성지식과 성 태도는 왜곡된 성인식을 완화하고 안전한 성행위와[19] 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사연구[6,7,12,16,17]와 상관관계 연구[5,19], 영향력 연구[4,18]가 대부분 수행되었고,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연구는 중ㆍ고ㆍ대학생을 중심으로 김현경[20] 등이 연구한 이래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경향을 비교 분석함으로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생의 건강한 성발달을 위한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선행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은 대학생의 생식건강 관련 중재나 정책적 제안 시 통합적인 연구자료로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한 성 관련 선행논문의 특성을 확인하고 측정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고찰연구이다.

2. 자료 수집

1) 논문 수집방법

성 관련 선행 논문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 간호학과와 보건학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어 대표적인 학술정보 DB인 한국학술정보,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http://www.riss4u.net)에 주제어를 '대학생', '성', '성 교육', '성 지식', '성 태도'를 text term으로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학위논문 16건, 학회지 46건으로 총 62건이 분류되었다. 이 중 학위논문과 중복된 학회지 논문 3건을 제외한 59건으로 성 관련된 변수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중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과 관련된 주제어로 선행연구를 한 논문 중 변수 간의 차이와 상관관계의 효과와 관련없는 선행연구 39건을 제외한 20편을 최종 분석하였다(Fig. 1).

2) 자료수집 절차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구자 2인이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3인이 검토하여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 기준을 정하고 간략화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고찰한 Cha [21]가 사용했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하였다.

3) 대상 논문의 분석 기준

논문의 발표 연도와 논문 유형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논문의 특성과 측정 변수 및 효과가 있는 논문 20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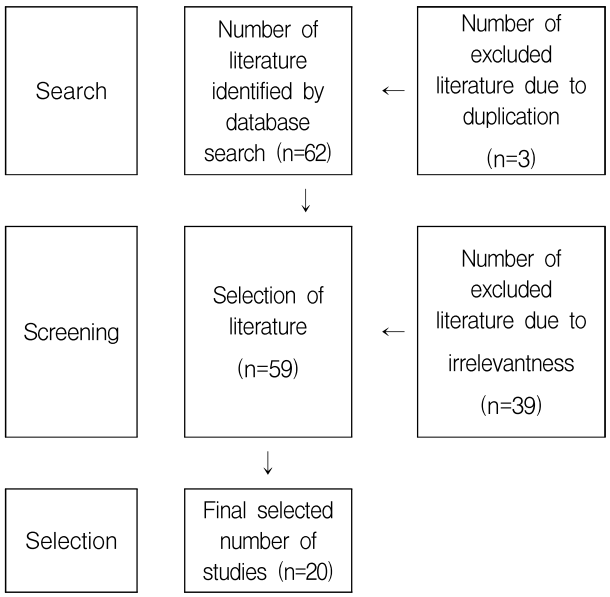

그림1. 문헌 선별과정
Fig. 1.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1) 발표 연도와 논문 유형

논문의 발표 연도는 10년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발표 유형은 석,박사학위 및 학술지로 구분하였다.

(2) 연구 특성

논문의 연구 설계와 년도별 사용 변수를 구분하였다.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대해 연구한 논문의 논문 유형, 대상자 수, 연구 기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 측정 변수 및 효과 유무 분류

성 관련 논문 중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변수를 사용한 논문 중 각 변수별 유의한 차이와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 변수를 분석하였다. 효과는 각 연구에서 제시한 p값으로 분석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면제 승인을 받은(IRB: 1040191-202004-HR-004-01)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유형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를 연도별로 유형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성 관련 연구는 1985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72.9%)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석사학위 논문이(25.4%) 많았다. 연도별로 볼 때, 2011~2020년에 게재된 논문이 44.1%, 2001~2010년에 게재된 논문이 37.3%, 1985~2000년에 게재된 논문은 18.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특성

표1.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연구의 연도별 유형
Table 1. Annual Types of Domestic Studies on Sex in University Students (N=59)

Years \ Type	Master's thesis	Disserta-tion	Academic Journal	Total
	n(%)	n(%)	n(%)	n(%)
1985 ~2000	1(6.6)	-	10(23.3)	11(18.6)
2001 ~2010	10(66.7)	1(100.0)	11(25.6)	22(37.3)
2011 ~2020	4(26.7)	-	22(51.1)	26(44.1)
Total	15(100.0)	1(100.0)	43(100.0)	59(100.0)

1)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연구설계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연구설계를 분석하였다. 년도별 논문 유형을 보면, 1985~2000년대에는 주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고, 2001~2010년대에는 비교연구, 효과연구, 조사연구, 상관관계 연구, 중재연구, 개념 분석 순으로 논문이 진행되었다. 2011~2020년대에는 조사연구, 효과연구, 상관관계 연구, 비교연구, 중재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 조사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효과연구, 상관관계 연구, 비교연구, 중재연구, 개념 분석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Table 2-1)

표 2-1.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연구설계
Table 2-1. Annual Research Design of Domestic Studies on Sex in University Students (N=59)

Designn / Year	Research study	Comp-arative study	Relation study	Concpt analysis	Intervention study	Effect study	Total
	n(%)	n(%)	n(%)	n(%)	n(%)	n(%)	n(%)
1985~2000	11(44.)	-	-	-	-	-	11(18.6)
2001~2010	5(20.0)	6(75.0)	4(44.4)	1(100.0)	2(66.7)	6(46.2)	24(40.7)
2011~2020	9(36.0)	2(25.0)	5(55.6)	-	1(33.3)	7(53.8)	24(40.7)
Total	25 (100.0)	8 (100.0)	9 (100.0)	1 (100.0)	3 (100.0)	13 (100.0)	59 (100.0)

2)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사용 변수

대학생의 성 관련 연구변수를 중복 체크하여 분석한 결과, 1985~2000년대 성 관련 연구변수는 성지식, 성교육, 성의식, 성태도, 성행동, 성경험 순이었으며, 2001~2010년대에는 성지식, 성행동, 성태도, 성교육, 성경험, 성의식과 성교육 프로그램, 성적 자율성 순이었다. 2011~2020년대에는 성태도, 성지식, 성행동, 성의식과 성경험, 성적 자율성, 자아존중감과 성허용도 및 성교육, 성교육 프로그램과 외모 만족도 및 피임지식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성 관련 변수 중 가장 많이 사용한 변수는 성지식(25.5%), 성태도(23.1%), 성행동(15.7%), 성교육(11.9%), 성의식(7.5%)과 성경험(6.7%) 개념이 가장 많았으며, 성적 자율성(3.0%), 성교육 프로그램(2.2%), 자아존중감(1.5%)과 성 허용도(1.5%), 외모 만족도(0.7%)와 피임 지식(0.7%) 순으로 연구에 사용되었다. (Table 2-2)

3.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측정변수의 일반적 특성

선행논문 29편 중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대해 연구한 논문 중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 변수와 유의한 차이와 상관관계를 제시한 논문 20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논문 유형은 석사논문 7편, 학술지 논문 13편이었고, 연구 대상자 수는 300명 이하(55.0%)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598.2명이었다. 연구기간은 11일~30일 사이가 11편(55.0%)로 가장 많았고 평균 42.4일이었다.

표 2-2. 대학생의 성 관련 국내 연구의 연도별 사용 변수
Table 2-2. Annual Analysis of Variables Used in Domestic Studies on Sex in University Students (N=59)

Variables / Year	1985~2000	2001~2010	2011~2020	Total
	n(%)	n(%)	n(%)	n(%)
Sexual knowledge	6(27.3)	15(25.4)	13(24.5)	34(25.5)
Sex education	6(27.3)	8(13.6)	2(3.8)	16(11.9)
Sexual attitude	4(18.2)	13(22.0)	14(26.4)	31(23.1)
Sexual action	1(4.5)	14(23.7)	6(11.3)	21(15.7)
Sexual consciousness	4(18.2)	2(3.4)	4(7.5)	10(7.5)
Sexual experience	1(4.5)	4(6.8)	4(7.5)	9(6.7)
Sexual autonomy	-	1(1.7)	3(5.7)	4(3.0)
Sex education program	-	2(3.4)	1(1.9)	3(2.2)
Self-esteem	-	-	2(3.8)	2(1.5)
Appearance satisfaction	-	-	1(1.9)	1(0.7)
Contraceptive knowledge	-	-	1(1.9)	1(0.7)
Sex tolerance	-	-	2(3.8)	2(1.5)
Total	22(100.0)	59(100.0)	53(100.0)	134(100.0)

표 3.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측정변수의 일반적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procedence Studies (N=20)

Characte-ristics	Variables	N(%)	Mean	Range
Type	Dissertation of degree	7(35.0)		
	Academic Journal	13(65.0)		
Number of subjects	≤300	11(55.0)	598.2	50~6,000
	301-500	5(25.0)		
	≥501	4(20.0)		
Periods (day)	≤10	2(10.0)	42.4	5~150
	11-30	11(55.0)		
	≥31	7(35.0)		

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측정변수 및 효과

대학생에 대해 연구한 선행논문 중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유의미한 차이는 논문 1편당 평균 2~8개의 변수를 적용하여 평균 3.6개의 변수를 사용하

였다.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 및 영향이 있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성지식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경험과 성별이 각 18.9%, 이성교제 경험과 주거가 각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경험 20.7%, 성별과 연령, 성교육이 각 12.5%, 음란물 노출, 학년이 각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이성교제 경험 18.3%, 성별 13.6%,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음란물 노출, 학년, 성교육, 부모의 태도가 각 9.1%이었다. (Table 4-1)

표 4-1.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차이 효과
Table 4-1. Effects and significant difference of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N=20)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n(%)	n(%)	n(%)
Sexual knowledge	-	-	2(9.1)
Sexual attitude	-	-	2(9.1)
Sexual behavior	-	-	-
Sexual experience	3(18.9)	5(20.7)	2(9.1)
Date experience	2(12.5)	1(4.2)	4(18.3)
exposure of obscene materials	1(6.2)	2(8.3)	2(9.1)
Gender	3(18.9)	3(12.5)	3(13.6)
Residence	2(12.5)	1(4.2)	-
Grade	1(6.2)	2(8.3)	2(9.1)
Religion	1(6.2)	1(4.2)	-
Age	1(6.2)	3(12.5)	-
Sex education	1(6.2)	3(12.5)	2(9.1)
Major	1(6.2)	1(4.2)	-
Smoking	-	1(4.2)	-
Drinking	-	1(4.2)	-
Internet	-	-	1(4.5)
Parental attitude	-	-	2(9.1)
Total	16(100.0)	24(100.0)	22(100.0)

대학생에 대해 연구한 선행논문 중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논문의 상관관계는 논문 1편당 평균 1~3개의 변수를 적용하여 평균 1.7개의 변수를 사용한 것을 나타났다. 성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성태도 60.0%, 성행동 20.0%, 성경험 10.0%, 성교육 요구도와 외모만족도가 각 5%씩 순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와 가장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성행동 44.4%, 성경험 22.3%, 성교육요구도와 외모만족도, 성의식이 각 11.1%씩 순으로 나타났다. 성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성지식 42.9%, 성태도 28.5%, 외모 만족도와 인터넷이 각 14.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2)

표 4-2.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상관관계 효과
Table 4-2. Effects of relation to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N=20)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n(%)	n(%)	n(%)
Sexual knowledge	-	-	3(42.9)
Sexual attitude	12(60.0)	-	2(28.5)
Sexual behavior	4(20.0)	4(44.4)	-
Sex experience	2(10.0)	2(22.3)	-
Sex education requirement	1(5.0)	1(11.1)	-
Appearance satisfaction	1(5.0)	1(11.1)	1(14.3)
Sexual consciousness	-	1(11.1)	-
Internet	-	-	1(14.3)
Total	20(100.0)	9(100.0)	7(100.0)

Ⅳ. 논의

대학생의 성 및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대해 연구한 국내 연구를 1985~2020년까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논문 유형을 보면, 1985~2000년대에는 주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고, 2001~2010년대 시기는 영향력 있는 변수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2011~2020년대에도 조사연구, 효과 연구, 상관관계 연구 등으로 2000년대 이후와 크게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지만, 2000년대 이전은 연구의 시행 초기이므로 대학생의 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었으므로 자료 확보를 위해 대학생의 특성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1년대 이후는 어느 정도 대학생의 성에 대한 연구자료가 쌓여가면서 연구 대상자를 비교하고 성에 영향력 있는 변수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쪽으로 연구 경향이 변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 관련 변수 중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한 변수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교육, 성의식과 성경험 등의 개념이 가장 많았다. 이는 김현경[20] 등의 연구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성지식과 성태도 개념 연구가 많았다고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였다.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측정변수 및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지식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경험과

성별, 이성교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성지식과 관련한 주요 변수라는 선행연구[13]를 지지하였다.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대인관계 및 이성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성지식을 성행동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 보다 성지식이 낮고[22], 성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하므로[23] 건전한 이성교제 및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성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7] 남학생들에게 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한 성지식 교육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성태도는 성경험, 성별과 연령, 성교육이 가장 유의한 차이가 많았다. 대학생의 성행위에 대한 견해로 표현되는 성태도는 개방적일수록 성경험을 더 많이 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6,24]. 이는 우리 사회의 성 규범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영향으로[24] 생각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5] 성교육이 성태도와 유의한[2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발달에 관한 지식인 성지식에 대한 교육은 대학생의 성변화에 따른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성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5]. 즉, 성교육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평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에 대한 태도를 바르고 도덕적으로 형성되게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26]. 따라서,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성과 연령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속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성행동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이성교제 경험, 성별,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음란물 노출 등이었다.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가 넓어져 이성간의 친밀감을 느끼고 남·녀간의 차이를 확인하며 심리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성교제와 음란물에의 노출과 성경험 등 성적활동이 활발한 반면[2], 혼전 성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경험 등에 대해 개방적인 경향이 점차 증가하면서[13] 데이트 폭력, 강간 등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한다[3]. 따라서,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며[17]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18],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교육함으로 바람직한 성가치와 성태도를 형성하고, 심리적·신체적으로 성숙된 성행동을 하도록 음란물 노출과 이성교제 및 성경험에 따른 성행동과 관련된 자신의 의지를 조절하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성과 관련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건전한 성 태도를 길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5]. 성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성태도, 성행동, 성경험, 성교육 요구도와 외모만족도 순이었고, 성태도는 성행동, 성경험, 성교육요구도와 외모만족도, 성의식 순이었다. 성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성지식, 성태도, 외모 만족도와 인터넷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며[17],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18]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성태도는 성경험 및 성대처 행동과 유의한 차이가 있고 성대처 행동의 예측변수는 성태도와 교제경험, 성경험 등이라는[4]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로써,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은 인과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대부분의 성지식을 습득하는[12] 대학생이 외모 만족도가 높으면 이성교제 및 성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27], 이는 성과 관련된 성 지식의 확장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성지식의 습득 시 대학생의 성교육 요구도에 따른 성지식 영역을 고려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원하는 영역별에 따른 요구별 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의 관계는 연계성과 영향력을 가지며, 성의식과 외모 만족도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음란물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대인관계적, 발달적 환경 속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관계 허용성이 높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의식 및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행동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의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이므로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로운 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 신뢰롭지 못한 경로를 통해 성지식을 주로 습득하는 대학생들에게 신뢰로운 정규적인 커리큘럼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삽입하여 정확하고 긍정적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정책

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V. 결 론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성지식에 가장 유의한 차이 및 영향 변수는 성경험, 성별, 이성교제 등이었고, 성태도는 성경험과 연령, 성교육 등이었으며, 성행동은 이성교제, 성별 등이었다. 상관관계는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 성경험 등이며, 성태도는 성행동, 성경험 등이고, 성행동은 성지식, 성태도 등이 가장 유의한 변수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성행동에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이성교제 경험, 성별,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음란물 노출 등이었다. 대학생들은 이성교제와 음란물에의 노출 및 성경험 등 개방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지식에 의해 성태도가 결정되며 성지식과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평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성숙된 이성교제 방법, 부정적인 성행동의 위험성과 성행동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성폭력 예방 등이 포함된 대학생에게 맞는 수준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ㆍ고등학교때 성교육에 비해, 대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정규적인 프로그램도 아니고 학생 스스로 미디어나 친구 등을 통해 습득하므로 대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속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방적인 점을 고려하여 여학생과 저연령 학생과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국한한 선행연구를 중점으로 분석을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변화와 추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수별 메타분석 연구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Lee HJ, “A study on the undergraduates’ view about the meaning of university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1, pp. 1047-1076, 2020.

[2] Kim JH, Kim KS,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3, No. 1, pp. 123-138, 2008.

[3] Finer LB, Henshaw SK, “Disparities in rates of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1994 and 2001”,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Vol. 38, No. 2, pp. 90-96, 2006. DOI:10.1363/3809006

[4] Kim HK, “Effect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n the sexual cop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 18, No. 1, pp. 31-42, 2017.

[5] Kim NH, Park YJ, Jung HS,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 7, No. 2, pp. 17-42, 2015.

[6] Park SM, Kang SJ, Kim MJ, lIM HJ, Cha J, “A survey of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experience of Japanese college students”, Hoseo Basic Science Research, Vol. 24, No. 1, pp. 97-106, 2016.

[7] Nam MA, “A study on the sexual sens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9, pp. 27-71, 2000.

[8] Aspy CB, Vesely SK, Oman RF, Rodine S, Marshall L, McLeroy K, “Parental communication and youth sexu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Vol. 30, No. 3, pp. 449-466, 2007.
DOI:10.1016/j.adolescence.2006.04.007

[9] Hutchinson MK, Jemmott BJ, Jemmott LS, Braverman P, Fong GT, “The role of mother-daughter sexual risk communication in reducing sexual risk behaviors among urban adolescent female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3, No. 2, pp. 98-107, 2003.
DOI:10.1016/S1054-139X(03)00183-6.

[10] Whitaker DJ, Miller KS, “Parent-adolescent discussions about sex and condoms: Impact on peer influences of sexual risk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5, No. 2, pp. 251-273, 2000.
DOI:10.1177/0743558400152004.

[11] Woo NS, Park MS, Choi WK,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xual knowledge, behavior and educ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ian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3, No. 4, pp. 127-150, 2006.

[12] Lee IS, Cho JY,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20, No. 2, pp. 59-68, 2007.

[13] Yoo GS, Ki NH, Kim MJ, Yang DY, Yoon JE, "Female college students' sexual intercourse and knowledge: a comparison of two cohorts in 2008 and 2018",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24, No. 1, pp. 37-54, 2019.
DOI:10.13049/kfwa.2019.24.1.3

[14] Kang YK, "Study on the sexual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information society", Social Science Review, Vol. 36, No. 2, pp. 259-279, 2017.

[15] Brown-Lavoie SM, Viecili MA, Weiss JA, "Sexual knowledge and victimization in adul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Vol. 44, pp.2185 - 2196, 2014.
DOI:10.1007/s10803-014-2093-y

[16] Shin KR, Park HJ, Bae KE, Cha CY,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2, No. 6, pp. 624-633, 2010.

[17] Hwang IM,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 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Seoul, 2009.

[18] Kim SJ, Moon ST, Kang HS,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0, No. 4, pp. 434-443, 2011.
DOI:10.12934/jkpmhn.2011.20.4.434

[19] Rock EM, Ireland M, Resnick MD, McNeely CA, "A rose by any other name? objective knowledge, perceived knowledge, and adolescent male condom use", Pediatrics, Vol. 115, No. 3, pp. 667 - 672, 2005.
DOI: 10.1542/peds.2004-0139

[20] Kim HK, Choi SJ, Kim MY, Yang KM, Lim ML, "A study of the content analysis on the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for the adolesc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16, No. 1, pp. 167-185, 1999.

[21] Cha NH, "An analysis of experimental research on foot reflexology from year 2000 to 2020",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385-393, 2020.
DOI: 10.15207/JKCS.2020.11.9.385.

[22] Kim NH, Park YJ, Jung HS,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 7, No. 2, pp. 17-42, 2015.

[23] Koo SM, Kim HJ,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1-11, 2017.
DOI:doi.org/10.14400/JDC.2017.15.12.1

[24] Kang YS, Hwang HN, "A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3, No. 1, pp. 9-17, 2017.
DOI:10.14370/jewnr.2017.23.1.9

[25] Min HY, Lee JM, Min HY, Jeong YW, "University freshman's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sex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5, No. 2, pp. 238-250, 2019.
DOI:10.5977/jkasne.2019.25.2.238

[26] Kang H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2007.

[27] Kim MY,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esteem, sexual consciousness, and self-appearanc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Cheonan, 2014.